



김제 지평선홍보클럽, 말복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

지평선홍보클럽(회장 서금옥)은 지난 11일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지평선홍보클럽 회원들은 장애인 2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한 분 한 분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날씨로 지친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다.



남원소방서, 대산면 실종자 수색 총력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9일 대산면 신계리 효성의집 인근에서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공동 대응으로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남원소방서는 위치추적 결과에 따라 대산면 신계리 일원에서 소방공무원 20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으며 효과적인 현장 지휘 수행을 위해 현장지휘소를 설치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소방서, 여행길 불청객 졸음운전 예방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11일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면서 졸음운전사고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졸음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피서철 졸음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장시간 주행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 순환 △견과류, 커피, 초콜릿 등 간식으로 졸음 예방 △졸음이 찾아오면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휴식 △장날 파로·과음시 운전실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운전 자제 등이다.

“늦은 나이에 한글 배우는 재미 푹 빠져”

부안군 바래청춘학교 이질순 학습자,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선정

부안군은 지난 8일, 군에서 운영하는 바래청춘학교(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이질순씨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영예의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문해, 배움은 늘 신기하다'라는 주제로 전국에 만 명이 넘는 학습자가 참여하여 두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수상작 '꿈공공'은 자식을 키우는데 일생을 바쳤던 날들을 회상하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느낀 배움의 즐거움과 신기함을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질순 학습자는 "행복하고, 기쁘다.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 같아 이제야 살맛이 난다. 한평생 비뚤어진 허리도 온갖 곳웃음을 다쳤고 허리가 삐뚤어지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 서럽게 살아왔는데, 문해 선생님께서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해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글 배우기에 도전했다. 늦은 나이에 글배우기를 시작했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요즘,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며, "세심하게 한글을 지도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두고 있으며,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힘쓰고 문해교육 확대 실시로 비문해 학습자들이 배움을 통해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작품은 9월 1일부터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시화전'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 캐나다 지평선배 수출 선적식

김제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1일 김산동에 위치한 조합법인 본관에서 캐나다 지평선배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경지중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 대표자를 비롯해 배 생산 농가, 김광식 원예농협조합장, 윤세천 김제조공법인 대표, 미래농업과장 및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올해 수확한 지평선배 13톤 가량이 캐나다에 수출된 것을 축하하고 향후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제에서 재배된 것 수확한 배를 집하·선별하고 검역 검사를 마친 배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엔 수출하는 배 품종은 원황(圓黃)으로 당도도 13Bx(브릭스)를 기록한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특히, 호흡기 질환 치료나 변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수출에 이어 김제시 대표브랜드 지평선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경찰서, 아동보호시설과 함께하는 하계캠ป์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지난 10~11일 청정인성수련원에서 아동보호시설 '요엘원'과 함께하는 하계캠ป์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체합을 통한 봉사 정신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추진됐다. '힘내라 청소년! 너희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고창군이 후원하고 경찰발전협의회가 함께한 행사로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4명, 임종훈 경찰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3명, 아모스 요엘원생 28명, 지도교사 6명 등 총 41명이 전북 원주 청정인성수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과 인성을 수련하는 시간과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진로에 대한 소감문 작성 시간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 특별치안활동 현장 점검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최근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해 '특별치안활동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고창경찰서장은 다중밀집 장소로 선정된 3개소(터미널·고창읍성·선운사)외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풍호·구시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하여 치안 요소를 분석하고,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과 거점식 순찰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집중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금지면, 말복 맞아 경로당 어르신에 수박 전해

남원시 금지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안민엽)는 지난 10일 말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27개소를 방문해 수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민엽 금지면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이번 말복을 맞아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수박을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6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금연캠페인